

---

#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에 대한 검토

이 동 주\*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기존의 연구 성과
  - III.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
  - IV.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
  - V. 맺음말
- 

---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서부지역 빗살문토기의 편년 설정에 기준이 되어 왔던 북한의 공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을 정립한 도유호는 공산유적의 도면과 야장, 유물들이 한국전쟁 과정에서 많이 유실되었고, 그 때문에 전쟁 이후 조사된 지탑리유적을 통해 공산문화 1기와 2기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지탑리유적 1지구 1호 주거지를 공산문화 1기, 그리고 1지구의 퇴적층과 2지구의 2호와 3호 주거지를 공산문화 2기로 편년하였는데, 그 근거는 농경관련 유물의 성격에 따라 팽이농사→갈이농사라는 사회발전 단계에 편년 기준을 맞춘 것이다.

도유호가 편년 근거로 삼았던 토기 문양을 중심으로 남한지역의 탄소연대가 확보된 관련유적들과 비교한 결과, 공산문화 2기 단계로 편년된 2호와 3호 주거지, 1지구의 퇴적층 유물들이 오히려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주거지의 형태를 통해서도 검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산유적의 경우, 지탑리 1호 주거지를 기준으로 분류된 편년체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탑리 1지구 퇴적층과 2지구 유구와 유물들을 기준으로 공산문화와 유적의 편년도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Ⅰ 주제어 Ⅰ

신석기시대, 공산문화, 지탑리유적, 까치산패총, 암사동유적, 중서부지역

## I. 머리말

신석기시대에서 다루고 있는 한반도 중서부지역 문화는 행정구역상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충청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임상택 2008), 토기의 기형은 원저, 혹은 첨저로 한반도 주변지역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 신석기토기 문화는 최초부터 끝나는 시기까지 원저 또는 첨저라는 큰 틀에서의 기형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편년은 주로 문양의 배치와 종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특히 이 문화의 확산과 관련하여 궁산-지탑리문화가 서해안을 거쳐 남해안과 동해안으로 전파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검토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전기 토기의 기준은 북한의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성격을 바탕으로 편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이 토기문화에 대하여 최초로 연구하였던 藤田亮策은 이 토기 문화의 원류가 시베리아 지역의 북방문화 남하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藤田亮策 1930), 1930년 부산 동삼동패총을 발굴한 横山將三郎이 이를 수용한 이래(横山將三郎 1933), 해방 이후에도 지금까지 남북한 학계에서 그대로 수용되어 왔다(김정배 1973; 김원룡 1981; 도유호 1960).

필자는 과거 시베리아 기원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점에서 부정하고, 이 지역 신석기문화의 연대가 동해안이나 남해안지역에 비하여 늦다는 점을 근거로 한반도 자체 출현으로 보았으며, 편년상 이 지역 토기 출현 이전 단계의 남부와 동해안지역 신석기문화가 농경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서해안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이동주 1999a). 특히 이 지역 토기 문양과 기형은 대부분 동해안지역과 남해안지역 전기 단계의 토기문양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저 또는 첨저라는 토기의 기형이 이 시기 한반도 주변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남해안 전기 압인문토기 단계의 원저와 첨저기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궁산-지탑리유적을 중심으로 중서부지역 전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삼고 있는 삼부위 시문 역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편년상 중기 단계로 편년되어야 할 것으로 주장한 바 있다(이동주 2001).

그리고 이 지역 신석기문화에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는 농경구라는 점에서 해안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주민들이 내륙으로의 적극적인 유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았는데, 동해안지역의 경우, 전기 단계가 끝나면서 문화의 단절현상이 나타나며, 중기

단계에 이르러 새롭게 서해안과 남해안의 신석기문화가 형성되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은 마제석촉의 출현과 확산과정을 통해 보완한 바 있다(이동주 1999b).

그러나 그 이후 대연평도 까치산패총(국립문화재연구소 2005)을 필두로 암사동유적, 영종도 운서동유적, 파주 능곡동유적 등지에서 남해안 전기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과 탄소연대가 확보되면서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궁산과 지탑리유적을 필두로 하는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최근 절대연대가 확인된 몇 유적들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궁산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을 재규명하고자 한다.

## II. 기존의 연구 성과

중서부지역 최초의 신석기유적이 확인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6년 鳥居龍藏에 의해 조사된 용강군 용반리패총과 대동강안의 낙랑토성 내에서 발견된 것이 최초였다(鳥居龍藏 1917). 그는 원시적인 기하학적 문양이 시문되어 있으며, 한반도 중부 해안과 도서지방에서도 발견된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본인들에 의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선사시대 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 초보적 검토에 그칠 뿐 뚜렷한 편년적 연구성과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 중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인해 서울 암사동유적에서 많은 유물이 노출되면서 요코야마 쇼자부로(横山將三郎)와 후지다 료사쿠(藤田亮策) 등에 의해 많은 유물이 수습되면서(有光教一 1962)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 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암사동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를 바탕으로 藤田亮策에 의해서 이 토기의 명칭, 즉 현재도 통용되는 즐목문토기(빗살문토기)라는 명칭 부여와 기원문제에 대한 언급이 지금까지도 남북한 학계에서 별다른 비판없이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즐목문토기는 일본과 중국에는 없고 북유럽·시베리아·알래스카·북미에 분포하는 토기로서 북방문화의 파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언급하였다(藤田亮策 1930).

해방 이후, 이 토기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북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의 궁산유적이 1950년 6월에 발

굴되었으며(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57), 1957년에는 황해도 봉산군 지탑리유적이 발굴되었다(도유호·황기덕 1957; 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61). 이 사이 기간인 1955년에는 평양시 승호구역의 금탄리유적이 발굴되었는데(김용간 1964), 이들의 선후 관계를 통하여 궁산 1기(궁산·지탑리 1호 주거지), 궁산 2기(지탑리 2, 3호 주거지), 궁산 3기(금탄리 2문화층)라는 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의 기본 토대를 이루게 되었다(김용남 1967). 여기에서 금탄리 1문화층은 아직 구체적 성격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후 서국태에 의해 금탄리 1문화층을 궁산 2기 다음으로 포함시켜 궁산문화라고 명명한 4기 편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서국태 1986). 이 중 변경된 점은 금탄리 2문화층의 경우, 이후 동일 성격의 남경유적이 발굴되면서(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 1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6년 서국태에 의하여 완성된 신석기시대 편년의 전체적 골격은 동북해안의 서포항유적 편년을 기준으로 중서부 지역의 궁산문화를 대입하여 설정되었다. 신석기시대 전기(이른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5000년기-4000년기까지로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였다. 전기 전반은 서포항 1기층 단계이며, 전기 후반은 서포항 2기와 궁산문화 1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기(발전된 신석기시대)는 기원전 4천년기 후반기-3천년기 전반기로 편년하고 서포항 3기를 대입하였으며, 중서부지역은 다시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였다. 중기 전반은 궁산문화 2기, 그리고 중기 후반은 궁산문화 3기 단계이다. 그리고 후기는 기원전 3천년기 후반-2천년기로 편년하고 서포항은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여 4기층과 5기층을 여기에 대입하였으며, 중서부지역의 경우는 세분하지 않고 궁산문화 4기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한편 해방 이후 남한 학계의 빗살문토기의 발생과 편년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는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먼저 최종규는 그의 석사학위논문에서 우리나라 신석기토기를 전·중·후기로 편년하고 그 중 남부지방 용기문토기와 압인문토기를 전기로, 그리고 빗살문(침선문)토기를 중기로 편년하였는데, 중서부지역의 경우 지탑리1식과 2식을 각각 남부지방 용기문토기-압인문토기에 대응하는 전기로 설정하였으며(최종규 1977) 빗살문토기 자체 편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남부지역 빗살문토기의 연대를 중서부지역보다 늦다는 기준 관점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듬해인 1978년 한영희는 북한학계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중서부지역의 세부편년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빗살문토기를 모두 3기로 구분하면서 대동강 연

안의 구분계 3부위 시문을 가장 이른 단계로 설정하고, 구분계 복합시문 단계를 거쳐 황주어골문양 단독시문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문양이 퇴화하는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한영희 1978). 이러한 변화과정에 대한 기준점은 최초의 중서부지방 신석기문화 기원은 서해안을 따라 대동강에 전파되어 성립한 지탑리문화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남하하여 암사동문화와 서해도서문화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한영희는 1990년대 중반 오산리유적의 발굴성과를 참고하고, 동북아시아 일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용기문토기를 빗살문토기 단계보다 이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수정된 견해를 발표하였다. 기존의 3기 편년에서 중서부지역에 있어서도 암사동1식 이전 단계로 구연부 문양만을 갖춘 초기 형식의 토기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초창기 단계로 설정하면서, 초창기-전기-중기-후기로 이루어진 4단계 편년안을 제시하였다(한영희 1983, 1996). 구분계의 3부위 시문이 이루어진 토기를 암사동1식, 구연부 종속문이 추가된 토기를 암사동2식, 구연부 문양만 시문된 토기를 암사동3식으로 명명하고, 초창기는 암사동1식 이전의 구연부 단독문양토기가 있을 것으로 상정하였으며,<sup>1)</sup> 전기와 중기는 다시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였다. 전기 전반은 암사동1식으로 3부위 시문을 주요 특징으로 삼았으며, 전기 후반과 중기 전반은 한 시기로 묶고 구연부 아래에 종속문이 추가되는 토기문양을 특징으로 삼았다. 그리고 중기 후반은 3단계로 나눈 후, 구연부 문양만 남은 암사동3식과 수평선 사이에 삼각집선문양이 부가된 토기<sup>2)</sup>와 저부를 제외한 전면에 거칠게 시문된 시도식토기(한병삼 1970)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후기는 암사동3식과 시도식, 황주어골문 단독 시문된 금탄리2식토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전에 후기로 편년하였던 矢島式의 상한을 중기 후반까지 끌어 올리면서 여전히 후기까지 존속하였다고 보고 있다.

1983년 임효재는 전면시문단계의 구분계와 황주어골문의 동일계를 동시기로 보고 문양의 시문부위에 의하여 전기와 중기, 후기로 편년적인 변화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임효재 1983a, 1983b). 전기는 기원전 5,000-3,500년, 중기는 기원전 3,500-2,000년, 후기는 기원전 2,000-1,000년으로 연대 구분한 후, 전기 중엽에 전면시문과 삼부위문양토기, 그리고 동일계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

1) 아마도 남해안 전기 단계의 영선동식 압인문토기 단계를 상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의 금탄리식토기를 의미한다.

다. 전기 후엽에는 전면시문과 구연부 종속문이 나타나는 토기를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중기 단계에는 저부문양이 생략되며, 후기에는 동체부문양이 생략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동일계 시문의 횡주어골문을 삼부위 시문과 동시기로 보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비교에 있어서는 동한의 서포항 1기층과 남해안 동삼동의 조도기와 목도기에 해당하는 용기문토기와 지두문토기를 빗살문토기에 선행하는 문화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기와 구분하여 초기 단계로 설정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중서부지역의 빗살문토기는 전기 중엽까지 소급하고 있으나 남부지역의 경우는 중기로 설정하고 있다.

이후 임효재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이나 빗살문토기보다 오랜 연대가 나타났던 오산리유적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석기 편년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하였다. 1997년 발표한 논문에서는 우선 지역군을 직립구연에 첨저 포탄형의 서한토기와 두만강을 포함하는 동한토기, 그리고 남한토기로 구분한 후, 남한은 미국인 Sample에 의한 동삼동패총의 층위, 그리고 동한의 경우에는 서포항유적을 중심으로 오산리식토기 단계를 포함시켰으며, 서한토기의 경우는 기존의 견해와 동일하지만 전기 중엽경으로 세분하여 출현기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3부위 시문은 중기 후엽으로 편년하고 있다(임효재 1997).

동시기 일본의 宮本一夫는 한영희와 임효재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이를 세분하여 중서부지역의 6기 편년안을 제시하였다(宮本一夫 1986). 1기는 삼부위문양, 2기와 3기는 구연부 종속문을 특징으로 하는데, 2기는 1기 특징에 동부 문양대 사이에 파상점선문 등 구연부 종속문양대가 출현한다고 하였으며, 3기는 구연부 종속문양대 중 대동강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삼각집선문이나 사격자문이 시문되는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4기는 동일계 문양의 등장과 5, 6기는 저부문양이 생략되는 것들을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1990년대에 들어와 안승모는 빗살문토기 단계를 중서부지역의 가장 이른 단계로 편년했던 북한 학계나 기존의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남해안지역의 층위적 관계를 고려한 한반도 전체적 시각에서 전기와 중기, 후기로 편년한 후 빗살문토기 단계의 위치를 중기에 위치시키고 있다(안승모 1993). 즉 남해안지역에서 빗살문토기 하층에서 나타나는 용기문토기나 압인문토기를 단양 상시3동굴유적의 용기문토기나 동해안 오산리식 압인문토기와 유사한 토기가 출토하는 춘천 교동 동굴유적의 압문토기를 근거로 중서부지역에 있어서도 이들 문화가 빗살문토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지역과 같이 평저의 용기문과 압인문토기 단계, 중기는 기존의 암사동유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침저 또는 원저의 구분계 빗살문토기, 그리고 후기는 횡주어골문을 중심으로 하는 동일문계토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후 안승모는 1999년 발표 논문에서 기존 견해를 수정하였는데, 후기로 편년되었던 횡주어골문토기가 중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과 구분문계 토기의 도식적 문양 생략이 전기-중기-후기에 대입될 수 없음을 탄소연대와 남해안 지역과의 병행관계를 통해 주장하였다(안승모 1999).

1999년 동아대학교에 유학중이었던 田中聰一씨는 중서부지역 빗살문토기를 편년하면서 우선 대동강과 한강 및 경기만지역으로 크게 구분한 후, 모두 6기로 구분되는 세부 편년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기와 중기, 후·만기에 각각 대입시키고 있다(田中聰一 1999). 모두 6기로 편년한 기본 내용은 宮本一夫의 견해와 유사하지만, 중서부지역 빗살문토기 이전 단계에 자돌 압인문토기 단계나 용기문토기 단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은 한영희의 관점과도 같다.

전기 전반에 해당하는 1기의 경우 구연부에 단사집선문과 동체부에 조잡한 종주어골문, 저부에 무문양을 가진 특징이 대동강 유역에서만 확인되는 반면, 2기부터 암사동유적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빗살문토기는 대동강유역으로부터 한강유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기의 경우 초기 단계로 일부 소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이른 단계로 편년되는 1단계의 경우 저부에 문양이 없고, 구연부 단사선문 아래에 압인 어골문이 구획문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1>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1. 田中聰一(1999)의 빗살문토기 편년

時 期	大 同 江		漢江・京畿灣		特 徵	절대연대
	文 樣	器 形	文 樣	器 形		
조기		용기문토기			미발견	
		자돌 압인문계토기			미발견	
前期	1期	삼부위 문양	침저·평저·발형 외	.	구연부에 단사집선문, 동부에 조잡한 종주어골문, 저부에 무문양	6,500(7,000) ~6,000 B.P.
	2期			.		
	3期	구연부 종속문	침저·평저·把手附·발형·壺形·壺形	삼부위문양 구연부 종속문	구연부와 동체부 문양대 사이에 파상점선문 등 구연부 종속문양대가 출현	6,000~5,500 B.P.
中期	4期			구연부 종속문	구연부 종속 문양대 중 대동강 유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삼각집선문·사격자문이 한강유역에 나타남.	5,500~5,000 B.P.
	5期	동일계 등장	침저·(평저)·발형·호형 외	동일계 등장	구연부 종속문의 소실, 다치구에 의한 횡주어골문·사격자문 시문. 아울러 전면 횡주어골문도 공반	5,500~4,500 B.P.
後・晩期	6期	저부문양 생략	침저·평저·발형·웅형·완형·호형	저부문양 생략	단사집선문이 소멸되고 구연부에 사선문 뿐인 것과 동부 절반까지 거친 어골문이 시문되는 시기	4,000~3,000 B.P.

그리고 같은 해 林尙澤은 중서부지역 빗살문토기 문화를 전·중·후기로 구분하고 각각 전반과 후반을 두어 모두 6기로 세분한 편년안을 제시하였다(임상택 1999). 대동강 연안의 궁산1기를 암사동식보다 빠른 단계로 보았다는 점에서 田中聰一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편년과정이 문양 시문부위의 축소라는 관점에서는 임효재의 관점과 유사한 반면, 동일계 횡주어골문을 후기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영희의 견해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林尙澤(1999)의 빗살문토기 편년

시 기	문양 배치	주요 문양	중요 유적	연 대	대동강
전 기	?	.	.	.	궁산 1기
	중부 1기	삼부위 시문	단사선+(어깨문)+종주·횡주 어골문	암사동, 미사리, 오이도 안말, 오이도 가운데 살막(서울대)	4,000 B.C. 이전 궁산 2기
중 기	중부 2기	삼부위시문 붕괴 (저부 무문화, 동일계)	단사선+암사동식 다치횡주 어골문	암사동, 미사리, 시도II지구, 오이도 안말	4,000~3,500 B.C.
	중부 3기	삼부위시문 붕괴 (동체 무문화, 동일계)	구연부 한정 단사선문	가도A, 노래섬 가지구, 관산, 상서동	3,500~3,000 B.C.
후 기	중부 전반	삼부위시문 붕괴 (동일계)	서해안식 전면횡주 어골문	는들, 송산리, 고남리, 오이도	3,000~2,000 B.C.
	4기 후반			신포동, 시도 I 지구 등	2,000~1,300 B.C.

최근 소상영은 탄소연대를 활용한 중서부지역 중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취락의 분포를 통해 점유양상과 생계 및 주거체계의 변동과정을 연구하면서 이에 대한 편년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소상영 2016). 이에 따르면 이 지역

신석기문화를 크게 I기와 II기로 대별한 후, I기는 기존 편년의 전기 단계로, II기는 전반, 중반, 후반으로 3분하여 기존의 전기-중기-후기로 분류되는 3시기 편년과는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기에 해당하는 I기는 BC 4,500-3,600년 사이로 삼부위구분계와 구분계로 나누고 경기지역에서는 종주어골문과 금탄리1식토기가, 그리고 충남해안지역에서는 남해안의 영선동식토기와 영선동식 대상반복문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II기 전반은 BC 3,600-3,000년 사이로 2부위 구분계와 동일계 횡주어골문, 집선문, 능격문이 출현하며, II기 중반은 BC 3,000-2,600년 사이로 동일계는 쇠퇴하며 동일계위주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II기 후반은 BC 2,600-1,500(1,000?)년 사이로 동일계위주 난삽화 및 무문계토기가 증가하고 구순각목공열문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 살펴본 북한학계와 남한의 최근까지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편년적 견해를 정리하면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3.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 주요 연구자들의 편년 비교

時期	김용남(1967)	한영희(1978)	서국태(1986)	한영희(1996)	田中聰一(1999)	임상택(1999)	소상영(2016)
조기				초창기 단사선계 구연부 단독문양 (?)	용기문, 자돌압인문 대동강 한강	대동강 한강	
전기 (I)	(?)	I식 3부위 문양	(?)	암사동 1식 3부위 문양	1기 3부위	공산 1기	1기 3부위 시문 구분계 종주 어골문(경기) 영선동식 (충남 해안)
	공산 1기 지탑리 1지구 1호 주거지			암사동 II식 구연부 아래 종속문	2기 구연부 구연부 종속문	중부 1기 공산 2기	
중기 (II)	공산 2기 지탑리 2지구 2·3호 주거지	IIa식 서로 다른 문양 복합시문	공산 2기 지탑리 2지구 2·3호	암사동 III식 구연부문양	4기 구연부 종속문	중부 2기	전반 27기 중반
			공산 3기 금탄리 1문화층	금탄리 1식 수평문 사이에 삼각집선문양	5기 동일계 등장	공산 3기 금탄리 2식 서해안식 동일계 구분계 쇠퇴와 소멸	
후기 (III)	금탄리 2 문화층 금탄리 2문화층 해주 용당포	IIb식 횡주어골문 단일시문	공산 4기 남경유적 1기 금탄리 제2문화층	암사동 III식 연속	6기 저부 문양 생략	중부 4기 공산 4기	후반 27기
		III식 줄문계 무문토기		시도식 연속			
		IV식 한줄의 덧띠 무늬 또는 구연부문양		금탄리 2식 횡주어골문 단독 시문			
						문양 단순화 난삽화	동일계 위주 난삽화 및 무문양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빗살문토기문화의 원류에 관한 견해는 1930년 藤田亮策가 북방문화의 파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藤田亮策 1930)한 이래, 북한학계(도유호 1960)와 남한학계(김정배 1973; 한영희 1996)에서도 대다수의 전공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시기 구분은 전기-중기-후기라는 3기 편년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편년의 기준이 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로 북한 궁산문화 1기로 편년되는 지탑리 1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전면(全面) 시문된 3부위 문양 토기를 기준으로 삼고 전기 후반으로 위치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구연부 종속문이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중요한 편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 다음은 문양의 종류에 따라 구분계와 동일계 문양, 그리고 시문부위의 축소, 즉 저부문양 생략, 동체부 문양의 생략 등의 요소도 편년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한영희(1978)와 임효재(1983a, 1983b)이다.

〈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영희는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 검토하면서 북한의 궁산1기 편년기준에 따라 지탑리유적에 나타나는 삼부위 문양을 주목하여 전기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중기에는 궁산문화 2기 단계에서 다른 문양의 복합시문된 토기와 저부 문양 생략되어 나타나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삼았으며, 후기에는 동체부 문양까지도 생략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임효재는 1983년 한영희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면서 구연부 종속문을 시기 구분의 중요한 속성으로 삼았으며, 문양의 속성 중, 구분계와 동일계로 대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다양한 편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96년 한영희는 북한의 궁산3기로 편년되는 금탄리 1문화층 토기가 암사동유적에서 나타나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중기 단계에 위치시켰는데(한영희 1996), 이 토기에 나타나는 삼각집선 문양을 서해안의 중기 단계으로 처음 적용시킨 것은 宮本一夫에 의해서였으며, 이후 한영희, 임상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 Ⅲ.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

#### 1. 궁산유적

궁산문화는 평안남도 온천군 운하리의 서해안 바닷가에 위치하는 궁산유적에서 비롯되었으며, 주거지와 패총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1949년 봄에 1호 구덩이를 조사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1950년 4월 13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1958년에 보고서가 간행되었다(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57).

보고서에 따르면 물소 유골의 출토를 통해 유적 형성 당시에는 아열대성 기후이며, 유적지는 섬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궁산유적의 패총은 후대의 것으로 유적 형성기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유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다소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중서부지역에서 최초 조사된 신석기유적이라는 의미에서 궁산문화란 명칭이 부여되었으며, 유적의 성격과 중요성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유적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쟁과정에서 대부분의 유물이 유실되었고, 남은 것들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 마저도 출토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보고서에서는 주거지와와의 공반관계 없이 조사당시의 기억을 중심으로 유물 소개만 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지점에 pit를 설치하여 50㎡의 구덩이 하나와 10내지 30㎡의 구덩이 5개를 정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5개의 주거지와 3개의 poket을 찾았다고 하는데 도면에는 6호 주거지까지 나타나고 있다.

5기의 주거지 중, 주거지 1호, 3호, 4호는 궁산문화 1기에, 그리고 2호와 5호는 궁산문화 2기로 편년하였는데, 1986년 서국태는 궁산 3기로 편년하고 있다(서국태 1986). 이 중 3호 주거지의 경우는 전란 과정에서 야장과 도면을 모두 분실하여 개략적인 내용만 언급되고 있다.<sup>3)</sup>

주거지 중앙에는 강돌로 둘러놓은 노지가 하나씩 있으며, 이 중 4개는 원형주거지이다. 5호 집자리 하나만은 움의 테두리가 모가 여러 개인 부정형이나 기둥구멍이 화덕을 중심으로 동글게 배열된 형태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 주거지도 원형 주거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용남 1967).

3) 보고서에는 6기의 주거지가 제시되었고, 그 중 3호 주거지 도면은 유실되어 없다고 한다. 보고서 출간 이후 모든 자료에는 5호 주거지까지만 언급되는데, 전쟁 이후 도면을 정리하면서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예를 들면 6호 주거지가 3호 주거지 도면일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이후 이를 정리한 김용남 등의 자료를 참고하면 다음의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김용남 · 김용간 · 황기덕 1975).

표 4. 궁산유적 주거지 짜임표(김용남 · 김용간 · 황기덕 1975 일부 개변)

	주거지	크기(cm)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깊이 (cm)	바닥	기둥구멍	화덕 (cm)	저장음	출입구 (cm)
궁 산 1 기	궁산1호	560-580	원형	·	120-130	점토 다짐	21개는 벽을 따라, 나머지는 중앙을 향해 경사 짐.	타원형 90×78	저부 자른 토기구경 44cm	서남쪽 80×150
	궁산3호	?	?	·	120-130	?	곧게 뚫린 기둥구멍	바닥 중앙	?	?
	궁산4호	직경 520-550	원형	·	90	점토 다짐	다수는 수직으로 8개는 중앙을 향해 경사짐.	돌을 두름. 직경 85	저부 자른 토기	?
궁 산 2 기	궁산2호	?	?	·	70	점토 다짐	직경 20cm 1개 10cm 미만 6개	진흙데두리(제형) 85×75	없음	?
	궁산5호	290-400×520	부정형	동북- 서남	70	점토 다짐	직경 20cm 이상 4개 5-10cm 7개	진흙데두리 (타원형) 100×70	없음	동북벽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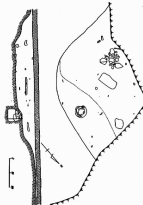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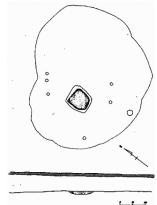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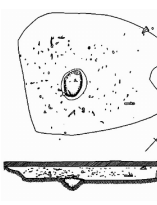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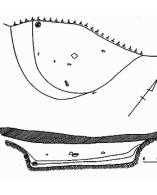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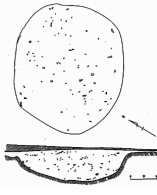

제1호 주거지	제2호 주거지	제3호 주거지	제4호 주거지	제5호 주거지
		?		
?	제2호 구덩이		제4호 구덩이	제5호 구덩이
?		?		

그림 1. 보고서에 나타나는 궁산유적의 주거지와 구덩이

## 2. 지탐리유적

지탐리유적은 황해북도 봉산군 지탐리에 해당하며, 사리원시로부터 동남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4년 정백운과 김재효가 이 일대를 조사하다가 전쟁 기간 참호를 뚫던 지역에서 유물이 발견되어 1957년 4월 초에서 5월 하순까지 45일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인지 발굴 직후인 1957년(도유호·황기덕 1957)과 1958년(도유호·황기덕 1958)에 각각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고 1961년에 정식 보고서가 간행되었다(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61). 본고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1955년에는 금탄리유적이 발굴되면서(김용간 1964) 지탐리유적 조사성과와 합쳐 공산문화 체계 성립의 밑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서흥천(瑞興川)이 흐르며, 북쪽으로도 작은 하천이 유적을 둘러싸며 흘러 서흥천과 합류한다. 동쪽으로도 좁아진 양 하천을 가로 질러 아주 작은 소하천이 흐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사질 충적토로 이루어진, 마치 하중도(河中島)와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다. 2개 지점으로 분리되는데, 1지구는 과거 한(漢)대의 대방군 토성으로 논의되는 고당성(古唐城) 내에 위치하며(도유호·황기덕 1957), 2지구는 위성 지도로 볼 때, 그 동남쪽 대략 67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서흥천 바로 인근 지점이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대의 유구와 유물이 분포하는데, 그 아래에는 각형토기 단계의 토기와 석기 등이 나타나며, 신석기층은 그 아래에 위치한다.

토성 내의 1지구에서는 1호 주거지가 발굴되었으며, 그리고 2지구에서는 2, 3호 주거지가 각각 조사되었다.

### 1) 1지구

1지구에서는 1호 주거지가 확인되었으며, 평면 형태는 방형이다. 남쪽과 동쪽 두 곳에 계단상을 이룬 출입구 추정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바닥과 벽은 점토로 다졌고 주혈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지는 전체적으로 불에 탄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따라서 당시 주거지와 불에 탄 기둥, 내부의 유물이 훼손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바닥 중앙부에서는 오목히 파고 큼직한 돌로 둘러싼 노지가 노출되었으며, 노지 옆에는 바닥에 거꾸로 깊이 묻은 저장용 토기 5-6개가 노출되었다고 하는데 저부

는 모두 제거된 상태이며, 직경은 40-50cm로 토기 내부에 부드러운 점토가 채워져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고자는 토기 제작용 태토를 보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바닥 중앙부의 노지는 본래의 것을 남쪽으로 더 확장한 것이며, 확장당시에 그 곁에 거꾸로 묻힌 토기를 그대로 둔 채, 깨트려서 확장한 노지 범위 안에 그 일부가 들어가게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주거지 바닥에는 많은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는데, 토기의 경우에는 옆으로 자빠졌거나 부서진 것 외에 대체로 거꾸로 놓여 있었다고 한다. 토기의 태토에는 대부분 석면이나 활석이 섞인 환저 빗살문토기(점선과 이갈잎 무늬)이며, 모래가 섞인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소형 토기 중에는 상반신을 점선문으로 채운 것도 있다. 태토는 석면 혹은 활석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래가 섞인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무늬는 구연부를 점선으로 몇 줄 시문한 아래로 평행 사선을 대상으로 그었거나 이갈잎 무늬, 평행사선을 그물문식으로 교차한 것, 간혹 반평저의 소형 토기에 상반신을 점선문으로만 채운 것도 있다.

이와 함께 주거지 내부 퇴적층 및 바깥 퇴적층 출토 유물이 별도로 소개되고 있는데, 주거지 내부 출토 토기에 비하여 무늬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하며, 점선 물결 무늬(파상점선문) 토기와 파수부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이며, 다음에 언급하는 2지구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 2) 2지구

2지구 1지구 1호 주거지 동남쪽 대략 670m 가량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남쪽에는 서흥천이 동-서로 흐르며, 북쪽으로도 1지점 북쪽에서 나란히 흐르던 하천이 2지구에 이르면서 서흥천과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병목지점을 이룬다. 이러한 지형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전쟁 당시 탱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전차호(反戰車壕)가 가설되었는데, 이 독의 양쪽에 걸쳐 모두 6개의 구획을 정하여 조사한 결과 반전차호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2호 주거지와 3호 주거지가 각각 확인되었으며, 양 주거지 간의 거리는 약 10m 정도이다.

### • 2호 주거지

2호 주거지는 한 변 3-4m인 말각방형이며, 수혈 바닥은 점토로 다져져 있었고,

지표에서 200cm 이하의 깊이에 해당한다. 바닥 한 가운데에는 노지가 위치하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좁은 타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노지는 주거지 바닥을 파고 주위의 돌들을 둘러놓은 형태였으나 교란되어 노지 바닥이나 서벽과 남벽 주위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 노출되었다. 노지 안에는 불탄 재도 섞여 있으나 섬록암과 판암 종류의 석재편, 반제품, 돌 마치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1지구의 1호 주거지나 궁산유적에서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노지 곁에 토기의 상반부를 거꾸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리가 확인되었으나 토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지 바닥에는 크고 작은 주혈들이 많았는데, 주혈로 사용된 것과 밑이 뽕족한 둥근 토기를 박아 앉혔던 자리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지를 중심으로 석기는 주로 서쪽과 북쪽에서 출토되었고, 토기는 그 반대 방향인 동쪽과 남쪽 부분에서 출토되었다. 이를 통하여 화덕 서쪽에서는 주로 석기를 제작하였고, 그 북쪽에는 사람이 거처하였으며, 동쪽과 남쪽에는 주로 토기를 놓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주목되는 사항은 석기 중에 보습의 경우, 모두가 서, 남, 북 어깨선을 따라 돌아가면서 널려 있었는데, 본래의 모습은 주거지 수혈의 어깨 낮은 처마 밑에 올려놓았던 것이 밀려 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바닥 남쪽에서는 2개의 토기가 서로 나란히 동서로 접하여 거꾸로 묻힌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릇 안에 가득 찬 흙에는 재부스러기도 간혹 섞여 있었으며, 유기물이 썩은 것인지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회색을 띤 것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개 중 큰 그릇 속에는 뼈조각 1개가 나왔는데 그 크기는 5×3cm 정도였으며, 불에 타다가 나온 것인지 회흑색을 띠고 있다. 그 밖에 아주 작은 뼈 부스러기도 나왔다. 이 2개의 질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외에도 1호 주거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석면질의 토기 외에 같은 질의 파상 점선 문토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석면 덩어리 2개도 출토되어 이곳에서 토기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갈돌과 갈판, 석제 낫, 석제와 토제 어망추, 석부와 석창, 석촉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남쪽에 출입구로 보이는 2단의 계단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남쪽을 제외한 3면에서 크고 작은 주혈이 원형으로 포치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주거지의 형태는 평면 원형의 포(包)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외에 2호 주거지의 환저 토기 내부에서 한 홉 정도의 탄화된 낱알과 도토리가 출토되었는데, 낱알은 육안으로 보아 조나 피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리고 주거지



상부의 간층에서 청동기시대 각형토기 단계의 석제 단검편, 청동제 석촉을 모방한 듯한 양익 유경촉, 별도끼편, 석화(石貨)편 등이 출토되었다.

### • 3호 주거지

3호 주거지는 평면 원형과 방형을 합쳐 놓은 듯한 구조이며, 동북변과 동남변의 길이는 320cm, 서북변이 380cm, 서남변이 약 400cm 규모이다. 바닥은 점토 다짐하여 거의 평면이며, 중앙에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 노지가 위치하고 있다. 노지는 깊이 20cm 가량이며, 주위에 노지를 둘러싼 돌은 보이지 않았으나 원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지 동남 연변과 겹쳐서 직경 60cm, 깊이 60cm의 큰 구멍이 있었고, 북쪽에 노지의 동변과 겹쳐서 이중으로 된 구멍이 또 하나 있다. 깊이 60cm에 달하는 구멍은 큰 질그릇 상반부를 거꾸로 박았던 저장구멍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고대 층(청동기시대)에 의한 교란이 심한 관계로 이 층에서 토기편을 비롯하여 갈돌, 돌낫 등의 신석기시대 유물들이 출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집자리 어깨선 아래 퇴적층에서는 모두 신석기시대 유물뿐이며, 토기와 석기의 중요한 것들은 주로 노지 부근에서 출토되고 있다.

주거지 바닥에서는 26개의 구멍이 확인되었는데, 직경 20-30cm가 7개, 나머지는 직경 10cm 내외의 것들이다. 구멍 중에는 수직으로 뚫린 것과 안쪽으로 경사지게 뚫린 것이 있는데, 경사지게 뚫린 것들은 모두 주거지 벽 밑에 있다고 하며, 동남 쪽으로는 2단의 출입시설이 확인되었다. 출토 유물은 2호 주거지와 대동소이하지만 활석질 토기의 비중이 좀 더 크며, 유물의 수는 훨씬 적다.

이 주위에서 불탄 자리와 각종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pit 동쪽 독 밑에서 5개의 보습이 부채살처럼 겹쳐 펼쳐진 채로 출토되었으며, 남쪽에는 굵은 어망추 25개가 노출되었는데, 돛자리를 짜는 데 쓰는 고드레돌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2호 집자리와 3호 집자리 사이에 윤곽을 잡을 수 없는 파괴당한 집자리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곳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5. 지탐리유적 주거지 짜임표(김용남·김용간·황기덕 1975 일부 개변)

	주거지	크기(cm)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깊이 (cm)	바닥	기둥구멍	화덕 (cm)	저장움	출입구 (cm)
공산 1기	지탐리 1호	665-735	방형	서북- 동남	40-50	점토 다짐	없음	강돌로 두 름(타원형) 110×120	저부 자른 토기 5개	동북쪽 (계단 시설)
공산 2기	지탐리 2호	400-440×420 바닥 350-400×370	말각 방형	남-북	50-60	모래	곧게 뚫린 기둥구멍	돌레에 돌 흩어진 타원형 80-90	3개(흔적만 남음)	동남 모서리
	지탐리 3호	380-400×320	말각 방형	서북- 동남	30-35	점토 다짐	직경 20-30cm 7개 10cm 19개	시설없음 타원형 90-110	1개(흔적만 남음)	동남벽 100- 150



그림 2. 지탐리유적의 주거지

이상 살펴본 공산과 지탐리유적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통점은 <표 4>와 <표 5>에 나타나듯이 공산과 지탐리 1, 2지구 주거지 모두 중앙부에 노지가 위치하며, 바닥에는 대체로 진흙다짐을 하고 있다. 지탐리 2호 주거지만 예외로 모래다짐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시기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지 외곽으로는 대체로 석재를 두르고 있으며, 노지 주변에는 저부를 제거한 대형 심발형토기를 거꾸로 묻은 저장움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토기는 전체적으로 원저 혹은 침저형에 가까운 것이며, 태토에는 활석과 석면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사질토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토기 문양에 있어서는 구연부에는 점열문을 몇 줄 두르고, 동체부에는 침선상의 어골문 계통(이갈문)이 나타나고 있다. 저부는 무문양도 많으나 어골문 및 평행사선문이 시문되고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탐리 2지구에서는 1지구의 1호 주거지에서 볼 수 없었던 돌보습이나 돌낫이 출토된다. 또한 1지구 제1호 주거지에서 볼 수 없었던 파상 점선문토기가 출토되며, 한자면서 평저에 가깝거나 혹은 평저로 넘어간 토기에 많다. 그리고 번데기무늬(幼蟲文)나 손톱무늬(반달무늬)를 띤 토기는 1지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2지구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 IV. 궁산유적과 지탐리유적의 편년적 성격

### 1. 궁산문화 1기와 2기의 편년적 근거

궁산유적과 지탐리유적의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도유호는 이 유적의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궁산문화 1기와 2기의 편년적 기준을 마련한 인물이다. 궁산문화라는 명칭도 그에 의해 제기되었는데(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61),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편년적 서열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궁산1기와 2기문화를 구분한 기준은 전장의 말미에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중심이다. 궁산유적은 한국전쟁 과정에서 많은 유물과 도면, 야장의 유실로 인해 유구와의 공반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유사한 성격의 지탐리유적 조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탐리 2지구에서는 1지구의 1호 주거지에서 볼 수 없었던 돌보습이나 돌낫이 출토된다는 점에 그는 주목하였다. 그는 초기 농경에 있어 팽이농사(鋤掘農業)와 같이농사로 구분하고 궁산문화 주인공들은 팽이농사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궁산유적에서 다량으로 출토되었던 사슴 뼈는 사육이 쉬운 북경반록이라는 점과 2개체 분 이상의 물소 뼈, 그리고 궁산유적의 원추형 주거지에 주목하여 야생동물을 사육한 양록민과 연관시켰다. “현재 민속학 상에서도 소는 기르면서 팽이농사밖에 할 줄 모르는 종족들을 볼 수 있다. 목축하는 종족과 팽이농사 하는 종족이 혼합하였을 경우나 또는 목축하는 종족이 팽이 농사하는 법을 배웠거나 팽이농사하는 종족이 소 기르는 법을 배웠을 경우, 목축은 목축대로, 팽이농사는 팽이농사 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면서 발갈이라는 발전적인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보습이 출토되는 지탐리 2지구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1지구 농사를 팽이 농사, 2지구는 발갈이 하는 농사, 즉 경작이라고 한다면 1지구의 것이 2지구보

다 더 이전 것임은 명백해지는 바이다.”(도유호 · 황기덕 1958)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1지구에 빗살문계통 이갈잎 무늬나 직선적인 점선문만 보이는데, 2지구는 파상 점선문이 나타나며 오히려 우세를 보인다. 파상점선문이나 보조개문(반동심원문), 번데기 무늬, 쌍점선의 굵은 안목문이 빗살문보다는 후에 들어온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다.”

도유호는 팽이농사→갈이농사라는 사회발전 단계를 먼저 설정하고, 궁산 1단계를 여기에 맞춘 후, 유물의 비교에서 차별성을 추출하여 편년 설정이 이루어졌는데, 지탐리 1지구 1호주거지→지탐리 1지구 퇴적층, 지탐리 2지구 2호, 3호 주거지로 편년과 성격규명을 하고 있다. 해방 이후 남한에는 발굴은 커녕 고고학 전공자조차 없었던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획기적인 조사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인정되는 편년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성과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1지구의 1호 주거지에서 많이 출토된 갈돌과 갈판이 농경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그림 2는 도유호가 편년 설정 과정에서 주목한 토기의 문양을 중심으로 궁산과 지탐리 1, 2지구 유물을 나타낸 것이며, 서로 연관성이 높은 순으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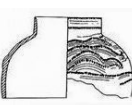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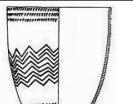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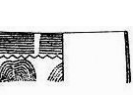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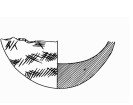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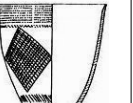

		A	B	C	D	E	F
궁산							
지 탐 리 2 지 구	2 호						
	3 호						
지 탐 리 1 지 구	퇴 적 층	.					
	1 호	.	.			.	

그림 3. 궁산과 지탐리유적 토기의 대표적 기종과 문양 비교(축척부동)

유적과 유구의 구분은 보고서에 나타난 근거에 의한 것이며, 문양 구분에 있어 A는 다치구에 의한 문양 시문, B는 파상점선문 관련 문양, 그리고 C는 종주 어골문 관련 3부위 시문, D는 도유호가 주장한 번데기문양, E는 파수부토기이다. 지탑리 2지구 2호와 3호 주거지는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동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중서부지역 절대연대가 확인된 관련 유적

공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 규명을 위해 우선, 남한지역 관련 유적 중 BP 4,900년 이전의 탄소연대가 나타난 관련유적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 6.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초기 단계의 탄소연대

유적명	유구	측정기관번호	시료	탄소연대	보정연대 (calBC)	중심연대 (calBC)	출전
영흥도 외리	1호 패총	SNU03-k049	패각	5630±30	4420-4200	4310	한양대 박물관 2005년
		SNU03-k050	패각	5680±60	4520-4210	4360	
		SNU03-k051	패각	5680±40	4480-4240	4360	
		SNU03-k052	패각	5200±50	3980-3680	3840	
		SNU03-k053	패각	4260±60	2870-2520	2710	
		SNU03-k054	패각	5310±120	4250-3680	3970	
		SNU03-k055	패각	5280±80	4170-3720	3940	
		SNU03-k056	패각	5570±60	4410-4080	4250	
		SNU03-k057	패각	5100±120	4030-3470	3740	
		SNU03-k058	패각	5540±80	4370-4040	4220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	15층	SNU05-A021	패각	5090±50	3890-3590	3720	국립문화재 연구소 2005년
	1층	SNU05-A020	패각	5060±110	3960-3450	3700	
	5층	SNU05-A019	패각	5370±70	4230-3860	4040	
	6층	SNU05-A018	패각	5250±70	4110-3700	3900	
	2층	SNU05-A017	패각	5020±40	3780-3520	3650	
암사동	75-2호 주거지	KAERI-189	목탄	5000±70	3950-3650	3790	국립중앙박 물관 1994
	75-10호 주거지	KAERI-188	목탄	5510±100	4560-4050	4360	
영종도 운서동	3호 주거지	SNU09-R209	목탄	5040±50	3960-3710	3850	중앙문화재 연구원 2010
	21호 주거지	SNU09-R211	목탄	4920±80	3950-3620	3720	
	30호 주거지	SNU09-R212	목탄	4990±60	3950-3650	3650	
	26호 주거지	Owd090010	목탄	4910±50	3800-3630	3690	
	14호 주거지	Owd090037	목탄	4930±50	3810-3630	3710	

유적명	유구	측정기관번호	시료	탄소연대	보정연대 (calBC)	중심연대 (calBC)	출전
파주 대능리	9호 주거지	KGM-PD-2	목탄	4940±40	3800-3640	3720	경기도자 박물관 2017
	10호 주거지	KGM-PD-3	목탄	4970±40	3810-3650	3730	
	17호 주거지	KGM-PD-4	목탄	4900±40	3770-3630	3700	
	24호 주거지	KGM-PD-7	목탄	4910±50	3800-3630	3715	
	34호 주거지	KGM-PD-9	목탄	4950±25	3781-3657	3719	
		KGM-PD-9	목탄	4920±40	3780-3640	3710	
	36호 주거지	KGM-PD-11	목탄	4930±30	3768-3651	3710	
		KGM-PD-11	목탄	4910±40	3770-3640	3705	
	37호 주거지	KGM-PD-12	목탄	4915±25	3715-3644	3680	

현재까지 중서부지역에서 확인된 가장 이른 탄소연대가 나타난 유적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도 외1리 패총유적이다(배기동·안신원·이종안 2005). 그러나 이 유적은 매우 소규모 패총이며, 탄소 연대 폭에 비해 출토 유물의 종류도 매우 단순할 뿐 아니라 수량도 매우 적다. 현재까지 관련시킬 수 있는 유물이나 유구 또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서해안 일대의 상한 연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은 200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된 유적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위치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서해 도서지역에 위치하며 궁산패총과 관련되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더욱이 유적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탄소연대도 BP 5,000-5,370년 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좁은 연대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궁산과 지탑리유적의 성격 규명에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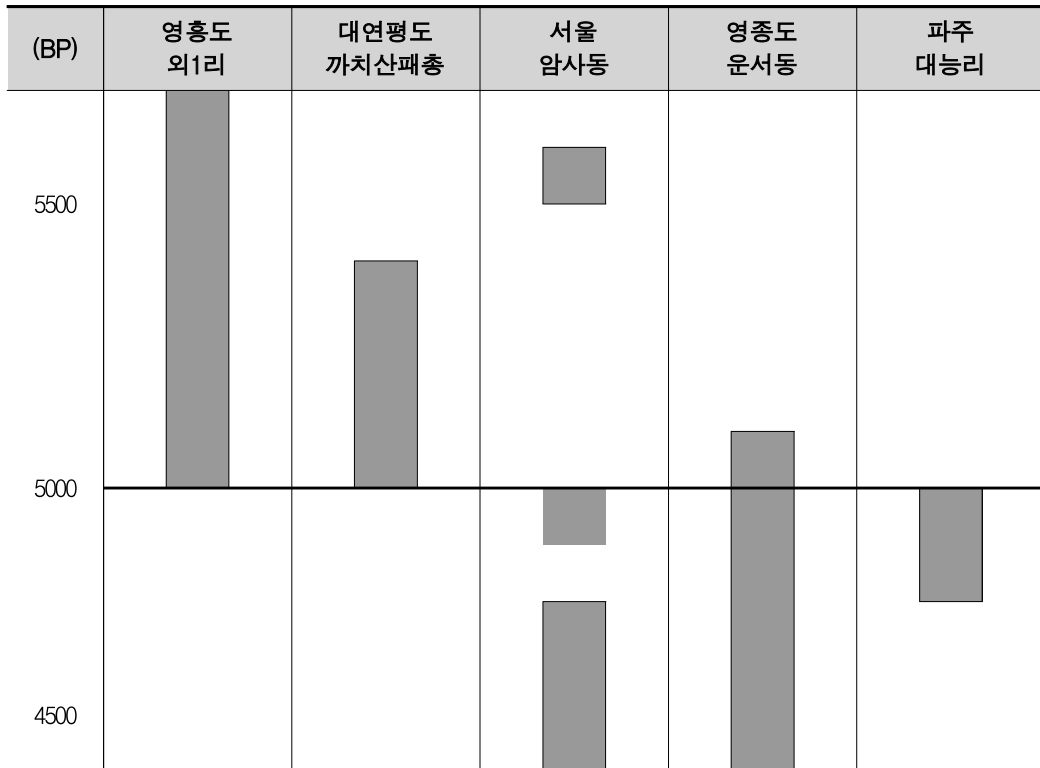
그리고 암사동유적의 경우는 1975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된 유적이며(국립중앙박물관 1994), 현재까지 우리나라 중서부 내륙지역에서 확인된 탄소연대 중 가장 이른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 영종도 운서동유적은 2008년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된 유적이며(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2개 지점에 걸쳐 패총이나 수혈유구 등 매우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주거지의 경우 모두 66동이나 된다. 이와 풍부한 탄소연대가 측정되어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궁산과 지탑리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다. <표 6>에 제시된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P 4,900년 이전의 탄소연대만 제시한 것이다.

다음으로 파주 대능리유적은 시굴조사를 거쳐 2014년 6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경기도자박물관에 의해 발굴된 유적이다(경기도자박물관 2017). 모두 39동의 주거지가 발굴되었으며, 이 역시 풍부한 탄소연대 측정치가 보고되어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의 편년적 성격 규명에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언급한 내용과 탄소연대를 바탕으로 중서부지역 이른 시기 유적의 편년적 위치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이 <표 7>이다.

표 7. 탄소연대에 의한 중서부 지역 이른 시기 신석기유적의 편년적 위치



### 3. 공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위치 검토

앞에서 제시된 탄소연대를 바탕으로 <그림 3>에 제시된 공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각 지점별 유물에 대한 편년적 위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급적 동일 주거지 출토품과 비교하며, 다양한 연대에 나타나는 동일 유물의 경우는 연대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문양 A의 경우, 다치구에 의한 시문이 특징이며, 궁산유적의 경우 마치 3부 위 시문의 중주어골문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탑리 2호와 3호 주거지의 경우에는 다치시문 바깥으로 테두리를 강조하기 위해 굵은 압인문이 시문되고 있다,

까치산패총은 모두 10개 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도면 다치구로 시문된 A형식과 반동심원문이 압인된 B형식 문양의 경우 2층, 그리고 동체부 어골문이 시문된 C형식의 경우는 8층, 복합 거치선문 내부에 격자문이 시문된 D형식과 파수부가 달린 F형식은 5층, 마지막으로 변데기문(유충문)이 시문된 E형식은 7층에서 각각 출토되었다.

주거지	A	B	C	D	E	F
까치산 패총						
영종도 운서동 3호				.		.
서울 암사동 10호	.			.		.
서울 암사동 2호	.			.	?	.
파주 대능리	.	 17호	 10호	.	 10호	.

그림 4. 절대연대치가 확보된 유적과 궁산 및 지탑리유적 토기의 비교(축척부동)

다음으로 영종도 운서동 3호 주거지의 탄소연대는  $5,040 \pm 50$  BP (calBC 3,860)로 나타났으며, 1975년 조사된 서울 암사동유적의 10호 주거지는  $5,510 \pm 10$  BP (calBC 4,490-4,350), 2호 주거지의 경우  $5,000 \pm 70$  BP (calBC 3,880-3,730)이다.

마지막으로 파주 대능리의 경우 B형 문양이 17호 주거지에서 나타나는데, 탄소연대는  $4,900 \pm 40$  BP이며, C형과 D형 문양이 나타나는 10호 주거지는  $4,970 \pm 40$  BP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모두 BP 4,900년 이전 단계의 유적에서 궁산과 지탐리유적의 문양형식들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며, 이 시기는 남한 중서부지방 신석기문화 중 매우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유호가 주장하였던 지탐리 2지구의 2, 3호 주거지와 지탐리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A형식과 B형식, 그리고 D형식과 E, F형식의 연대가 결코 늦은 시기의 유물 특징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궁산 1기 문화를 대표하는 지탐리 1호 주거지 유물과의 편년관계 및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림 4>에 나타나는 문양 형식 중 D형식의 경우는 까치산을 제외한 남한 내 다른 유적에서는 출토 사례가 없으며, 북한 지역에서도 궁산과 지탐리 1지구 퇴적층과 2지구 이외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 운서동의 5,040 BP 이전과 까치산패총의 연대 범위 내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다 소멸한 형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D형식이 출토되지 않은 궁산 1기의 지탐리 1호 주거지 연대가 궁산 2기 단계의 유물보다 시기가 늦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탐리 1호 주거지의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하는 C형식의 경우는 지탐리 1지구 퇴적층과 2지구에 나타나는 2, 3호 주거지 출토품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선 지탐리 2지구 유물의 경우, 구연부 문양 아래에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동체부에 어골문과 유사한 파상집선문을 시문하고 있다. 이를 Ca 형식으로 정하기로 한다. 이에 반하여 지탐리 1호 주거지 출토품은 구연 아래에 곧바로 어골문을 시문하여 동체부 전면에 시문하였으며, 저부는 평행사선문이나 어골문을 시문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서부지역 3부위 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Cb 형식이라 정하고, <그림 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020 BP 이전의 연대를 나타내는 까치산 패총의 층위에 이를 대입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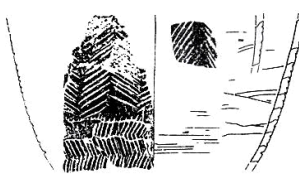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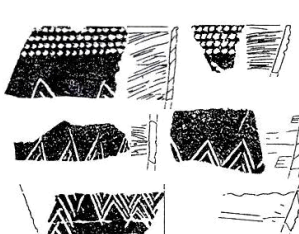
층위	Ca	Cb	Cb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Ca
7층			
8층			
9층			
10층			

그림 5. 까치산 패총 층위별 Ca 형식과 Cb 형식 출토 정황

대연평도 까치산 패총의 경우, Ca 형식 토기편은 8층에서 2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15점이 출토되었고, Cb 형식은 5층에서 〈그림 2〉에 나타나는 2점이 출토되었다. 패총유적의 경우, 상층부로 갈수록 교란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층에서부터 나타나는 Ca 형식이 Cb 형식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경우, 대체로 원형 수혈 움집에서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검토하였던 바와 같이 지탑리 1지구 1호 주거지는 수혈의 깊이도 얕은 방형인데, 이에 대하여 도유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여기서 본래 원추형 내지는 포형 주거였던 것이 방형 주거의 영향 하에 방형 주거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며, 또 원형과 방형이 함께 병존했다는 것을 상정하게 된다.”(도유호·황기덕 1958)

앞선 시기로 본 궁산유적의 1기 단계는 원형 주거 형태로 보았지만, 지탑리 1호 주거지의 구조가 방형이어서 혼란을 겪었을 것이다. 이에 지탑리 2·3호 주거지보다 이른 시기로 보았기 때문에 1기 단계에 병존한 것으로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궁산 1기 단계에 원형과 방형이 병존한 것이 맞다면, 궁산 2기 단계인 2, 3호 주거지가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앞선 궁산유적 1기의 4호 주거지와 동일하다. 이는 석제 보습이 나타나지 않는 주거지 1동에서의 상황을 농경발전 단계에 맞추면서 편년이 확실치 않는 토기 문양에 근거하여 1호 주거지의 연대를 끌어 올렸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라고 판단된다.

중기로 편년되는 서포항 3기층 단계에 이르면서 이전의 원형 주거지에서 모두 방형으로 변화가 나타나며, 궁산문화 2기 후반이나 중기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용남·김용간·황기덕 1975). 이러한 사실은 지탑리 2지구의 2호, 3호 주거지가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의 <그림 6>에 나타나는 것은 지탑리유적의 대표적 석기유물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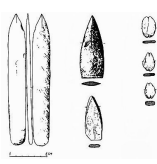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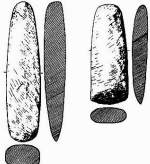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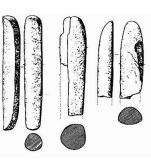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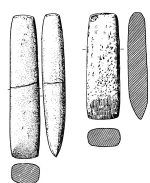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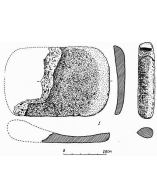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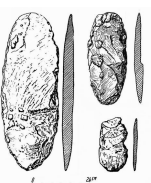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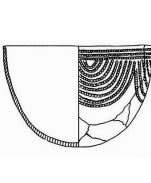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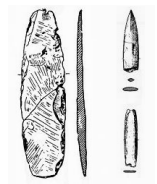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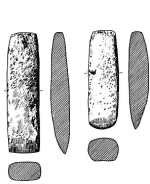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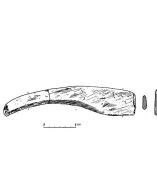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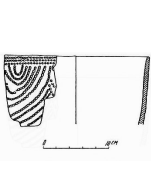
주거지	석창과 석촉	마제석부	갈돌과 갈판	보습과 기타	발형토기
지탑리 1호					
지탑리 2호					
지탑리 3호					

그림 6. 지탑리유적 주거지별 석기유물 비교

1호 주거지는 보습만 없을 뿐이지 지탑리 1호 주거지에서는 농경과 관련되는 갈돌과 갈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보습의 유무로 연대를 가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조사된 신석기시대 주거지를 통해 볼 때, 동시기 주거지 중에서도 보습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만약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지탑리 3호 주거지에서는 갈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주거지의 연대는 훨씬 더 오래된 것이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지탑리 1호 주거지에서는 석창인지 마제석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매우 발달된 석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더 늦은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V. 맺음말

본고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서부지역 빗살문토기의 원류, 혹은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궁산유적과 지탑리유적의 편년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앞서 검토한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궁산문화의 설정 기준이 되었던 궁산유적은 매우 중요한 유적이었지만, 한국전쟁 직전에 조사되었던 관계로 전쟁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유실되어 매우 부실한 상태로 보고서가 간행되게 되었다. 이 얼마 후 조사가 이루어진 지탑리유적의 조사는 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지탑리유적을 통해 궁산유적의 성격을 재조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궁산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도유호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궁산 1기와 2기의 편년 구분의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이후 남한의 탄소연대가 확보된 관련 유적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 편년체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탑리 유적은 지형상, 하천으로 둘러싸인 충적지에 해당하며 1지구와 2지구로 구분된다. 양 지역 간에는 약 7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1 지구는 1호 주거지와 퇴적층, 그리고 2지구에서는 2호 주거지와 3호 주거지로 분류된다. 도유호는 1호 주거지는 궁산문화 1기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동시기로 보고 모두 궁산문화 2기에 포함시켰다. 그 근거는 1호 주거지에서는 석제 보습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모두 보습이 출토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팽이농사→갈이농사라는

사회발전 단계에 편년 기준을 맞춘 것이다.

우선 지탑리유적에 분류된 4가지 기준에 따라 도유호가 편년 근거로 삼았던 토기 문양을 중심으로 남한지역의 탄소연대가 확보된 관련유적들과 비교한 결과, 오히려 공산문화 2기 단계로 편년된 2호와 3호 주거지, 1지구의 퇴적층 유물들이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 형태에 있어서도 공산유적 1기 단계와 지탑리 2지구 2호와 3호 주거지는 모두 원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말각방형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지탑리 1호 주거지는 방형 구조를 이루고 있다. 편년상 이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유적에서도 모두 방형이 나타나는 점도 공산문화 1기로 편년된 지탑리 1호 주거지는 공산문화 2기 단계로 편년된 2·3호 주거지보다 늦은 단계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유적의 경우, 지탑리 1호 주거지를 기준으로 분류된 편년체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탑리 1지구 퇴적층과 2지구 유구와 유물들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로 구분되는 공산문화의 편년이 재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경기도자박물관, 2017, 『파주 대능리유적』.
- 고고학민속학연구소, 1957, 「궁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2, 과학원출판사.
- \_\_\_\_\_, 1961, 「지탑리 원시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8, 과학원출판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대연평도 까치산패총』.
- 국립중앙박물관, 1994, 『암사동』.
- 김용간, 1964, 「금탄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10.
- 김용간·석광준, 1984, 『남경유적에 관한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용남, 1967, 「우리나라의 신석기시대」, 『고고민속』3호.
- 김용남·김용간·황기덕, 1975, 『우리나라 원시 집자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 김원룡, 1981, 『한국고고학개설(개정신판)』(일지사).
- 김정배, 1973, 『한국 민족문화의 원류』.
- 도유호, 1960, 『조선원시고고학』, 과학원출판사.
- 도유호·황기덕, 1957,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보고 I」, 『문화유산』5.
- \_\_\_\_\_, 1958, 「지탑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2)」, 『문화유산』6,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 배기동·안신원·이종안, 2005, 『영흥도 외1리 패총』, 한양대학교 박물관.
- 서국태, 1986, 『조선의 신석기시대』, 사회과학원출판사.
- 소상영, 2016, 『한반도 중서부지방 신석기문화 변동』, 서경문화사.
- 안승모, 1993, 「한강유역의 신석기문화」, 『한강유역사』민음사.
- \_\_\_\_\_, 1999, 「서해안 신석기시대의 편년문제」, 『고문화』54.
- 이동주, 1999a, 「빗살문토기문화의 성격」 『선사와 고대』13, 한국고대학회.
- \_\_\_\_\_, 1999b,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의 연구」 『문물연구』17호, 동아시아문물연구 학술재단.
- \_\_\_\_\_, 2001, 「중동부해안지역 빗살문토기문화의 성격」, 『한국신석기연구』창간호.
- 임상택, 1999, 「한반도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중기토기의 양상」, 『선사와 고대』13, 한국고대학회.
- \_\_\_\_\_, 2008, 『한반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변동과정 연구』, 일지사.
- 임효재, 1983a, 「토기의 시대적 변천과정」, 『한국사론』12.
- \_\_\_\_\_, 1983b, 「편년」, 『한국사론』12.
- \_\_\_\_\_, 1997, 「신석기문화」, 『한국사』2,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 중앙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운서동유적 I』.
- 최종규, 1977, 『기하문토기의 편년표 작성을 위한 소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병삼, 1970, 『시도패총』, 국립박물관.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5, 한국고고학회.

\_\_\_\_\_, 1983, 「지역적비교」, 『한국사론』 12.

\_\_\_\_\_, 1996, 「신석기시대 중서부지방 토기문화의 재인식」, 『한국의 농경문화』 5.

宮本一夫, 1986,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第121輯.

田中聰一, 1999, 「韓國中西部地方の新石器時代土器について」, 『先史學考古學論集』 白木原和美先生 古稀記念獻呈論文集, 龍田考古學會.

藤田亮策, 1930, 「櫛目文様土器の分布に就きて」 『靑丘學叢』 2.

有光教一,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 東京大學.

鳥居龍藏, 1917, 「平安南道黃海道古蹟調査報告書」, 『大正五年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橫山將三郎, 1933,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調査報告」 『史前學雜誌』 5-4.

藤田亮策, 1930, 「櫛目文様土器の分布に就きて」 『靑丘學叢』 2.

【Abstract】

A Study on the Defining Chronological Order of  
Gungsan and Jitap-ri Sites in Korea

Lee, Dong-ju\*

Gungsan and Jitap-ri sites in North Korea have been used as a standard of defining chronological order of comb-pattern potteries in the central-western region in Korea. This standard was established by North Korean Archaeologist, Do Yuho.

Since the site plans, field notes, and artifacts of Gungsan site were lost during the Korean war, Do Yuho relied heavily on the findings from the Jitap-ri site, which was investigated after the Korean War,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ure of Phases 1 and 2 of the Gungsan Culture.

House No. 1 of Jitap-ri Area 1 was attributed to Gungsan Culture Phase 1, and the Jitap-ri Area 1 cultural layer and Area 2 Houses 2 and 3 were attributed to Gungsan Culture Phase 2. The basis for this chronological understanding was provided by the farming tools from this site which define the development of an agricultural system.

However, According to radiocarbon dating, it was revealed that Jitap-ri Area 2 Houses 2 and 3 and the artifacts from the Area 1 cultural layer were in fact earlier than Gungsan Culture Phase 2, which was originally regarded as the same stage. This fact could also be observed through dwelling floor plan.

As such,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in the current chronological scheme for the Gungsan site (which was based on the chronological understanding of Jitap-ri House 1) is not valid. Indeed, it has become clear that a new chron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Gungsan Culture and site must be attempted based on a reconsideration of the dating of Jitap-ri Area 2 Houses 2 and 3 and the Area 1 cultural layer.

Key words : Neolithic Period, Gungsan Culture, Jitap-ri site, Kkachisan Shell Midden,  
Amsa-dong site, Central-western region

---

\* Dong-A University